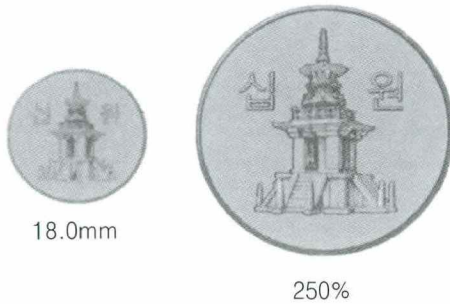


# 새10원 동전 발행 된다

자판기 업계,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듯

새 10원 동전(앞면)



새 10원 동전(앞면)



내년 1000원권 신권 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자판기 결제에 있어 주된 화폐 중의 하나가 1000원권이다 보니 결제수단의 변화는 일대 혁명이라 할 만큼 큰 시장과장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필드에 운영중인 대다수의 자판기는 신1000원권을 인식할 수 있는 지폐식별기를 교체해야 하는 과제가 따른다. 적어도 내년 추석전후까지는 신권에 맞는 지폐식별기를 교체해야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렇듯 국가 통용화폐의 변화는 자판기 산업 분야에 있어 민감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1000원권 같이 자판기에 있어 주된 결제수단의 경우는 더하다. 새 1000원권과 더불어 10,000원권도 발행이 되지만 3급중 지폐식별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 이미 발행된 5000원권도 마찬가지이다.

내년도 새1000원권, 새10,000원권이 발행이 되면 국내 통용 지폐의 변화는 마무리된다. 그 다음의 변

화의 타킷은 동전이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 8월 새 10원 동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구리와 아연가격이 급상승하여 10원 동전의 소재가치가 액면금액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2006년 8월 10일)을 거쳐 재질을 바꾸고 크기를 대폭 줄인 새 10원 동전을 올해 말 경부터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질은 현재의 황동에서 구리 썩은 알루미늄으로 바뀌게 되고 크기는 현재의 지름 22.86mm에서 18.0mm로 변경된다. 무게는 4.06g에서 1.2g으로 변경된다.

한마디로 10원 동전의 생산 코스트 절감을 위해 새 10원 동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새 10원 동전의 등장으로 앞으로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10원 동전이 유통됨에 따라 동전취급 및 관리상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원 동전을 사용하는 주화취급



자동판매기 운영자가 매출의 영향을 고려해 코인메카니즘을 개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존 제품에 있어서는 현 코인메카니즘 그대로 가고 새로 나오는 신제품에 있어서나 새 10원 동전을 인식할 수 있는 코인메카니즘 채택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진다.

기기 (공중전화기기, 주화계수기, 주화분류기, 자동판매기 등)의 일부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영향이 얼마나 될까?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취급상품의 가격이 대부분 50원, 100원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어 고객이 10원 동전을 사용하는 빈도가 매우 적다. 물론 10원 동전이 있는 경우 사용을 마다하지는 않지만 500원이나 100원 동전, 1000원권 사용이 주가 된다.

따라서 자동판매기 운영자가 매출의 영향을 고려해 코인메카니즘을 개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존 제품에 있어서는 현 코인메카니즘 그대로 가고 새로 나오는 신제품에 있어서나 새 10원 동전을 인식할 수 있는 코인메카니즘 채택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진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불편이 예상된다. 새 10원 동전을 기존 자판기에 투입하면 자동방출이 되게 되므로 사용상 번거로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새 동전 투입에 따른 기기의 오작동 또는 미반출 등의 현상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정도의 소비자 불만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자판기 산업계는 진정으로 소비자 편리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새 10원 동전을 인식할 수 있는 코인메카니즘을 채택해야 한다.

아무리 금액이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통용화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해야하는 일은 당연한 산업계의 의무이다. 자판기 메이커와 부품업체들도 이점을 중시하고 만반의 대

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말의 소비자 불편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고객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자판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고양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새 10원 동전 발행이 자판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발권정책의 변화가 있을 줄 모른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발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새 100원, 새 500원 동전이 발행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 모든 자판기의 코인메카니즘을 개체해야 하는 과제가 따르기 때문에 새 1000원권 발행에 못잡은 시장 혼란과 과장이 예상된다.

이렇듯 국가의 새로운 화폐발행에 따라 산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자판기 운영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화폐발행이 결코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지만 해당 부품업체 및 유지관리업체 있어서는 시장 특수이 기회다.

그동안은 국가 화폐의 발행이 산업계의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막강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산업계가 싫든 좋든 수용하고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화폐발행 변화에 앞서 자동판매기 업계에 끼치는 영향과 업계 입장이 치밀히 고려되어야 한다. 발권당국이 돈을 바꾸어 놓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이 아닌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최대한 피해가 없는 상황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금융통화위원회, 새 10원 동전 발행 의결

한국은행 제공

- 2006. 8.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 10원 동전 재질을 구리씩옴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크기를 대폭 줄인 새 10원 동전을 발행하기로 의결함
  - 이번에 10원 동전을 새로 발행하게 된 것은 최근 구리와 아연 가격이 급상승하여 10원 동전의 소재 가치가 액면금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제조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임

### < 재질 및 규격 >

- 새 10원 동전의 재질은 현재의 황동(구리 65%, 아연 35%)에서 구리씩옴 알루미늄으로 변경
  - \* 알루미늄 소재의 양 겉면에 얇은 구리판을 덧씌운 소재로, 세계적으로 처음 사용되는 재질임. 한 금속의 양 겉면에 다른 금속을 얇게 씌운 소재의 주화를 씌움주화(Clad Coin)라고 부르며 이러한 소재의 주화로는 미국의 10·50센트(백동씩옴 구리), 체코의 10(구리씩옴 강철)·20코루나(백동씩옴 강철) 등이 있음
- 규격은 지름이 18.0mm로 현재(22.86mm)보다 4.86mm 작으며, 무게는 1.2g으로 현재(4.06g)보다 대폭 가벼워짐

### < 디자인 >

- 새 10원 동전의 디자인 소재(다보담) 및 문자·숫자 배열체계는 현행과 동일하나 문자 및 숫자의 글자체는 새 은행권에 적용된 글자체로 조정함
  - 색상은 구리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구리색을 땀에 따라 50원, 100원, 500원 동전과 쉽게 구분 가능

### < 발행일 >

- 새 10원 동전은 소전 조달, 석고 조각 및 극인 제조, 발행준비물량 제조에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 금년말경에 발행될 예정
  - 새 10원 동전이 발행되더라도 현용 10원 동전은 계속 사용됨
    - 한국은행은 환수되는 현용 10원 동전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계속 유통시킬 계획임

### < 기대효과 >

- 새 10원 동전의 소재가치는 액면을 크게 하회하는 5~6원(현용 10원 동전의 소재가치는 2006. 7월말 현재 약 24원) 정도로 낮아지고 제조단가도 40원대에서 20원대로 하락하여 연간 약 40억원 가량의 제조비용을 절감 가능



### < 예상되는 불편 >

- 규격이 다른 새 10원 동전의 발행으로 공중전화기 등 일부 동전취급기기에서 새 10원 동전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다소간의 국민 불편이 예상되나, 시중에서 10원 동전 사용빈도가 낮은 데다 발행잔량이 60억장에 달하는 현용 10원 동전이 계속 병행 통용될 것이므로 불편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취급상품의 가격이 대부분 50원 또는 100원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고객이 10원 동전을 사용하는 빈도가 매우 낮음
    - 이에 자동판매기 운영업체가 기기를 개체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운영업체가 동전취급기기를 개체하지 않더라도 현용 자동판매기, 공중전화기 등에 새 10원 동전을 투입하면 자동 반출되므로 새 동전 투입에 따른 기기의 오작동 또는 미반출 등에 따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 (문의 : 발권정책팀 TEL. 759-4625)

## << 1962년 이후 재질 변경 사례 >>

### 1. 1원화 (1968. 8월, 황동 → 알루미늄)

- 한국은행은 1968. 8월 1원화가 거의 환수되지 않는 가운데 제조단가가 크게 상승(1967년 2.74원, 1968년 3.80원)하고 소재가치도 1.70원에 달함에 따라 소재를 황동(구리 60%, 아연 40%)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
  - 디자인과 지름은 변경하지 않았으나, 무게는 1.70g에서 0.729g으로 가벼워짐
- 화폐제조비 절감 및 소재가치 하락(1.70원 0.43원)으로 1원화의 유통 촉진

### 2. 10원화 및 5원화 (1970. 7월, 합금비율 변경)

- 한국은행은 1970. 7월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단가 상승(5원화 5.79원, 10원화 6.30원)에 대처하는 한편 무게를 줄여 휴대 편의도 도모하기 위해 10원화 및 5원화의 재질을 종전의 구리 88%, 아연 12%에서 구리 65%, 아연 35%로 변경
  - 이에 따라 색상(연황색)이 종전보다 밝아짐
  - 디자인과 지름은 변경하지 않았으나 무게는 가벼워짐(10원화 : 4.22g 4.06g, 5원화 : 3.09g 2.95g)
- 화폐제조비 절감 및 화폐 휴대 편의 제고

### 10원 화폐의 변천 내용

권화종	최초발행	발행정지	규격 <sup>1)</sup>	소재(인쇄방식) <sup>2)</sup>	주도안소재	비고
가10원권	1962. 6. 10	1962. 9. 1	108 54mm	평판	한국은행 휘장(앞면) 숫자 10 (뒷면)	- 영국 토마스 데라루사 제조
나10원권	1962. 9. 21	1973. 10. 30	140 63mm	평판	첨성대 (앞면) 거북선 (뒷면)	- 한국조폐공사 제조 - 1962년 긴급통화조치시 영국에서 제조·반입한 은행권을 국산으로 대체
가10원화	1966. 8. 16	-	22.86mm, 4.22g	황동(구리 88%, 아연 12%)	다보탑 (앞면) 숫자 10 (뒷면)	- 한국조폐공사 제조
나10원화	1970. 7. 16	-	22.86mm, 4.06g	황동(구리 65%, 아연 35%)	다보탑 (앞면) 숫자 10 (뒷면)	- 한국조폐공사 제조 - 도안 및 규격은 변경하지 않고 소재의 구성비율만 변경
다10원화	1983. 1. 15	-	22.86mm, 4.06g	황동(구리 65%, 아연 35%)	다보탑 (앞면) 숫자 10 (뒷면)	- 한국조폐공사 제조 - 주화 도안 시리즈화 - 다보탑을 입체화하고 석사자상 삽입

※ 주 : 1) 은행권은 가로 세로, 주화는 지름 및 무게      2) 은행권은 인쇄방식, 주화는 소재

가 10원권



나 10원권



가 10원화



나 10원화



다 10원화



※ 주 : 은행권은 실물의 가로, 세로 각 50% 크기, 주화는 실물 크기